

교실에 '따뜻함+'을 더하다. 풍산초 DIY 동아리

2015년 07월 01일(수) 16:02 [순창신문] **경로복사**



© 순창신문

풍산초등학교는 2011년도부터 농촌지역 작은 학교의 교원 및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하고 풍부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아 '소통과 협력으로 참삶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라는 비전 아래 5년찬 알찬 혁신학교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풍산초등학교의 전 학년이 혁신학교 '알록달록 무지개 교육과정, 교실 운영' 계획을 통해 학년별 특색있고 개성있는 동아리활동을 전개하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예, 꼬마 악극단, 동요동시사랑, 자연생태탐험(자연愛), 따뜻함+DIY, 색종이공예, Do!SMART 동아리, 색종이공예, 블록놀이, 두바퀴로가는 풍산초, 농촌체험, 흙사랑학습 등의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2층 침대 제작에 열심히 참여한 5학년 김현은 학생은 "침대를 처음에 스케치하며 구상할 때와 직접 조립할 때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때도 있었지만 교실에 침대가 완성되니 마음이 정말로 뿌듯해요. 아플때는 누워서 쉬기도 하고 2층에 올라가 책을 읽고 있으면 재미있고 정말 신이 나요. 앞으로 침대에 누워서 수업도 받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며 추억을 쌓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풍산초등학교에서는 앞으로도 매달 꾸준한 학생 중심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급 단위에서 실현하기 힘든 다양한 교육적인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의 자아 실현 및 적극적인 인성 교육을 실천을 지속할 예정이다.